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 19면에서 계속

오니까 어느 준수한 사람이 오더니 거북이를 탁 보더니만 아, 거북이를 갖다가 네 쪽을 내서 물로 홱 팽개치거든, 네 쪽을 내서. 그게 무슨 연고냐 이거야, 또. 그래 이걸 칼로 잘라도 껍데기가 두꺼워서 안 잘라지는데 확 뒤집어 놓더니 그냥, 그냥 네 쪽으로 잘라서는 휙 물에다 팽개치면서 하는 소리가 "인제 몸뚱이째 다 바쳤느니라." 그러고선 "아예 시신도 없다." 하고선 손을 번쩍 들면서 물로 다 팽개쳤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자기는 홀연히 인간의 탈을 다시 쓰게 됐고, 환생으로서 어느 준수한 집에 태어났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린애가 태어나고부터 그 집에 가난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 또. 그런데 그 어린애가 16살이 되니까 아, 그때에 보았던 스님 모습이 또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얘를 집안에다 두면 집안이 점점 망하니 내게 달라." 그러더랍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맏아들로 낳았는데 맏이를 어떻게 주느냐.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의 팔자겠지. 얘가 있어서 망할 수가 있겠느냐?" 하니까 "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야." 하더랍니다. "얘 대신 얘 동생이 맏아들 노릇을 하고 또 얘를 나한테 주면 당신네 집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내게 달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 인도환생을 한 그 사람은 그 스님을 좇아서 절로 갔습니다.

근데 절로 간 것까지 요렇게 해 두고, 거북이로서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간단히 말한 거지마는 먹지 않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거북이가 죽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워. 사람도 살기보다 죽기가 아주 쉽다 이러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기보다도 죽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의 신세 안 지고, 아프지 않고 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여러분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기가 더 어렵죠? 그렇게 죽으려면 어떻게 죽느냐고 할 겁니다. 회향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간 되기도 어렵지만 회향이 어렵고, 즉 말하자면 사람이 동물로서 태어나는 것도, 이런 어떠한 미물의 짐승이라도 사람하고 같이 수반이 돼야만이 인도환생을 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사람이 되려면 사람과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해야 인간 환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뱀이나 소나 개나 고양이나 날아다니는 짐승, 새들도 사람을 보지 않은 새는 몇 바퀴를 새의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봤어야지, 응? 봤어야 어떻게 이 진화가 되지, 보지 못한 거는, 우리가 음식도 보지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한 거는 생각조차도 나지 않죠. 우리 범위 내에서 아는 것만이 생각나지 보지 못한 거는, 모르는 건 통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뱀도 인간이 먹는 간장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럴 수 있어야, 눈에 띄지 않고 먹을 수 있어야 인도환생을 한다는 겁니다. 소도 그만큼 인간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시봉을 해 가지고 그 고생을 해 가지고 소를 면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환생하기가 어려운 그 고비를, 고비를 천 년을 닦아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이 오늘날에 이 부처님 법을, 그렇게 참, 진실하게 발견해야 할 그 문제를 놓고 왜 만날 그저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왜 자기 자신의 그 스승을 믿지 않고,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자기 스승을 믿지 않고 그렇게 되느냐.

사람이 이 생각 나고 저 생각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무한의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는 것입니다.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 아닙니까? 동물이나 이런 것은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졌습니다. 망하게 생각을 해도 자유권이요, 또 잘되게 하는 생각을 가졌어도 자유권입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런데 자기 자유권을 갖고서 자유스럽게 자기 생각을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망상이라고 한다 이거야. 망상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끄달린다고 하면서 아주 진저릴 치거든. 왜 진저릴 쳐? 생각나는 대로 그것이 어디에서 하는 건데? 자기, 바로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바로 자기 주인이란 말이야, 응? 자기 주장자며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며 바로 우주의 근원이기도 한데 어떻게 해서 그걸 믿지 않고서 그 생각 생각, 생각나는 거를 우리가 망상이라고 할까! 그거는 인간이 부처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건 고가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이 저녁 먹을 쌀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계시다면 먹을 것이고, 주인이 안 계시다면 못 먹을 것이고, 못 먹는 거든 먹는 거든 주인에게 맡겨 놔라 이거야. 엎드러트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젖혀 놓을 수 있는 힘도 있고, 굶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먹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것이다 이거야. 그건 누구냐? 그 천 년을 오면서 자기를 인도환생으로 끌고 온 자기 장본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아까 거북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남을 살생을 안 하고 이렇게 거쳐 와서 인간으로 환토를 해 가지고, 인간으로서는 벌써 부처 될 90%의 가능성이 있고 100%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 짐승으로선 사람 되기 위해서 천 년을 그렇게 지내 왔지만, 도를 닦아 왔지만, 수행을 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됐을 적에는 천 년이 일 초도 될 수 있고 일 초가 천 년도 될 수 있고 천 년이 삼 일도 될 수 있고 구 일도 될 수 있고 일 초도 될 수 있고 그러하니, 모든 것은 그 끌고 나온, 끌고 다니는, 이름해서 참근본에 모든 거를 맡겨 놔라.

우리가 그전부터도 이런 인연이 없었더라면 이 한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원이 낮은 사람들은 차원이 낮은 대로 모이게끔 돼 있고, 차원이 높은 사람은 차원이 높은 대로 모이게 마련입니다.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듯이, 이 세상을 가만히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해 보십시오. 모두가,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합니다.

그런 거를 살펴볼 때에 우리 인간은 대자연의 선구자이기도 하면서 우린 부처일 수도 있으며 한생각 내려놓으면 법신이면서 보살이면서 또는 한 발짝 다시 떼 놓으면 '발신'이다 이거야. 그래서 머리 위에는 만 부처가 같이 한자릴 하고 있고, 이 손은 법신의, 바로 보살의 그 손이기에 없는 손이다 이거야. 어디고 손 아니 닿는 데가 없는 보살의 손이다 이거야. 또 이 발은 아니 닿는 데 없이 법에, 법신에 의해서, 보살에 의해서 바로 신장이 뒤따라 주는 발신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야. 작동을 한단 얘기예요.

보살은 보살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부처는 부처기 때문에 '자비다, 자비 아니다'라는 거를 통틀어서 능력만 보살에게 내 줄 수 있는 그 부동한 심봉과 같은, 원자력과 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살에게 잘못하거나 부처님에게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법이 내리는 거야.

> **여러분이 저녁 먹을 쌀이 없더라도**
> **그 주인이 계시다면 먹을 것이고 안 계시다면 못 먹을 것이고,**
> **못 먹는 거든 먹는 거든 주인에게 맡겨 놔라.**
> **엎드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 **젖혀 놓을 수 있는 있는 힘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보살의 이 경지는 산신도 되지 독성도 되지, 즉 지금 말로 한다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또는 그, 판사 우두머리가 뭐죠? 허허허, 응? 응, 대법원장!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쭉 내려오면서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은 '마음을 먹고 잘못했느냐, 말로 그냥 잘못 말을 했느냐' 거기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은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하지만 자기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짓는 거를 모르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라, 마음에 의해서. 그러니 누가 앞에 있으면서 말을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라.

그러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그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거를, 가진 것 다, 모든 거를 다 맡겨 놔라 하는 거는 '죄짓지 말라' 이거거든. 부처 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모든 걸 맡겨 놓게 되면 전자의 거북이로 살던, 소로 살던, 짐승으로 살던 그 습을 다 놓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때의 그 연쇄 반응으로 지배를 받던, 차원의 지배를 받던 낮은 동물이나 이러한 것은 다 놔 버리니까 타 버리고 마는 거죠. 원자력에 다 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원자력의 힘이 100%이고 전자력의 힘이 50%라면 50%는 100%에 먹혀 버리고 말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자의 그 습이, 팔자 운명이라는 그런 거, 또는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거기에 다 그냥 체인지가 돼 버리고 말죠. 타 버리고 만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다 놔야 할 것을 못 놓고 이렇게 애를 쓰니, 사람 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웠는가를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거니와, 우리가 수십억 년이라고 해도 되고, 년도 광년이라고 해도 돼. 그러면 수십억 년 전에 이 세상이 생길 때부터 모든 생명들이 생겨 가지고서 우리가 차츰차츰 자라 가지고 인간이 되기까지에는 얼마만큼 그게 걸렸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 사람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사람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가난을 면하고, 운명 팔자를 면하고 또는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당부할 것은,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꿰뚫어 보고 또 알고, 이런 것을 원하지 마세요. 왜? 그걸 꿰뚫어 보면 "넌 팔자가 이렇다. 너는 운명이 이렇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요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다. 너는 요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있다." 요런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사밖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놓는다면, 여기 이 눈으로다가 자꾸 오지 않고 마음으로 들게 하는 것은 요런 소소한 거를 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 이 팔자 운명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가 자유대로 '이건 팔자가 없다.' 하면 없는 겁니다. '운명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하면 않은 거야. '넌 잘 살겠다.' 하면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자유권을 가지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왜 거기에 끄달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서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7월 26일 일반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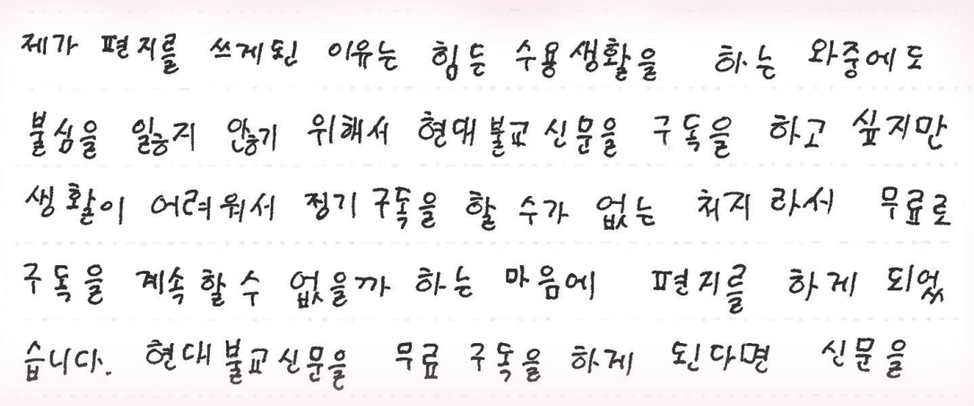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